

김통영 해병수학





용감한 어머니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제대
로 사용하신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많은 숙제가 떠오르실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 한다는 건 말이죠





0. 질문

우리 어른들은 어린 시절 꿈꿨던
미래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일까요?

입시가 끝난 어머니와 학생들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하시던가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계획은?

특별한 학생을 만들고자
특별한 학원을 찾는게 맞다면
특별한 부모가 되는 것은요?





1. 욕망과 착각

‘우리 애가 특출나진 않아도 잘 하는
아이니까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면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갈꺼야’

“반에서 5등인 학생은 잘하는 아이?”
그렇다면 (이과 진학시) 이 아이의
미래는?

‘우리 애랑 재랑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재가 선행을 이만큼
하면 우리 애도 당연히 그만큼
선행을 나가야지’





1. 욕망과 착각

‘내가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좋은 학원도 알아보고 돈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하겠지’

‘내가(애 아빠가)똑똑하니까
우리 애도 하기만 하면
이 정도 대학은 가겠지?’





2. 현실

'지금까지 우리 애 학원에서
항상 잘 한다고 했는데
입학테스트 결과가 왜 이래?'

'우리 애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 하는 앤데 왜 이런
(이따위) 반에 들어가는 거지?'

'좋은 학원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
가기도 하니까 애가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2. 현실

‘아니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수학도 “잘하고” 선행도 이만큼
했는데 O등급??’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부 다 중요하니까 학원 수업
들으면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3. 가까운 미래

- 중학교 때 내신수학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40% 전후
- '중학교 때 잘 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 아무리 신성고라고 해도 5,6등급이 나와?





3. 가까운 미래

- 잘 하는 애들이 선행을 많이들 해서
선행이 좋은 것 인줄 알았는데
공식도 하나도 모른다
- xx고, oo고 가면 내신 따기 쉽다고
해서 그냥 해도 1,2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나온다
- **이런 줄 몰랐다아아아!!**



4. 판단의 근거

- 대체 이렇게 믿는 근거가 무엇인가
-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 귀에 듣고 싶은 달콤한 말
Vs 듣기 힘들어도 들어야 할 말





4. 판단의 근거

-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 특히 신성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것?
- 좋은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는 것?
-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5. 객관화

- 내 아이의 진짜 실력은 어떤가
- 목표하는 대학과 진로는 얼마만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가
- 한 번에 한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가





5. 객관화

-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언제나 생각하라
- 믿음과 방치는 한 끝 차이다
- 아이에게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진지하게 들어라





아니 무슨 학원
설명회가 이래?